

# 『<戦争論>을 읽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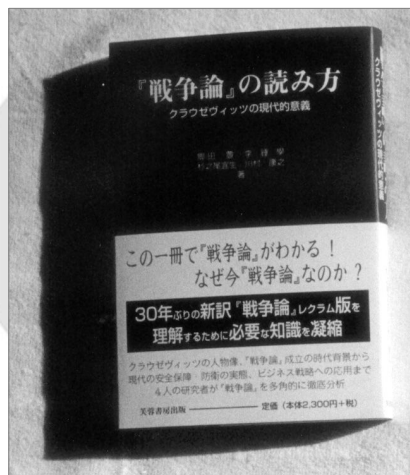
— 클라우제비츠의 現代的 意義 —

李 鍾 學

(서라벌군사연구소장)

## 1.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전 클라우제비츠의 未亡人 마리에 의해 출판된 클라우제비츠(1780-1831)의 『戦争論』(1832)은 당시로서는 想像할 수도 없는 오늘날의 戦争様相, 즉 「宇宙空間의 戦争」에서 「테러戦争」에 이르기까지 그의 戦争哲學과 戦争理論이 아직 有效하다는 것이 軍事專門家들의 一般적 견해이다. 美國의 國防大學校와 陸軍大學, 로마의 나토(NATO)大學, 프랑스의 高



等國防研究所, 英國의 王立國防大學, 獨逸의 指揮參謀大學 그리고 韓國·日本·中國의 軍事大學校 등에서는 아직 『戰爭論』이 研究·討論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 戰爭의 本質 및 構造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 政策과 軍事의 關係定立이며, 오늘날의 文民統制(civilian control)의 원형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 戰爭遂行 및 戰略·戰術論의 基本的 考慮要因의 考察

넷째 : 戰爭理論의 方法論的·理論的 基礎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戰爭論』은 哲學的 用語의 抽象性和 방대한 分量으로 인해, 名著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읽혀지기 보다는 인용문으로 활용되었고 또 難解·誤解의 책으로 사람과 나라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1980년 독일에서 初版에 의한 레클렘(RECLAM) 縮小版의 『戰爭論』이 간행되어 研究에 편의를 제공했고, 日本에서 이 책을 번역·발간함(2001)과 동시에, 案内書로 『<戰爭論>의 讀み方—クラウゼヴィッツ의 現代的意義—』(東京: 芙蓉書房出版, 2001)가 出刊되었다. 著者は 郷田豊(日本클라우제비츠學會長), 杉之尾宜生(前防衛大學校教授), 川村 康之(防衛大學校教授) 그리고 本人을 합하여 네 사람이며, 書評이라기 보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300쪽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① 왜 『戰爭論』은 難解한가
- ② 왜 『戰爭論』은 誤解되었는가
- ③ 『戰爭論』은 어떻게 各國에 受容되었는가
- ④ 아시아의 戰爭을 『戰爭論』으로 評價하면 어떤 結論이 나오는가
- ⑤ 日本陸軍은 『戰爭論』을 어떻게 理解했는가
- ⑥ 理論과 實踐, 知識과 能力은 어떤 關係에 있는가

- ⑦ 現代戰略論에서의 『戰爭論』의 위치는 ?
- ⑧ 知識管理(knowledge management)와 『戰爭論』
- ⑨ 번역되지 않은 遺稿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
- ⑩ 지금 왜 클라우제비츠인가-『戰爭論』의 現代的 意義-

## 2. 왜 『戰爭論』은 難解한가?

『戰爭論』은 발간된 이래, 不朽의 名著로 평가되어 왔지만, 아직도 難解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주로 그의 戰爭研究의 方法論에서 비롯되고 있다. 方法論이란, 어느 학문의 성격에 관한 哲學的 觀點·認識論的 基礎 위에서 知識을 얻는 근거의 타당성을 究명한 수속으로서의 理論的 接近法을 뜻한다.

클라우제비츠의 論法, 思考方式, 認識論 그리고 戰爭理論의 일관된 체계를 수립하고자 당시의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獨逸觀念主義哲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異論이 없으나, 獨逸觀念主義哲學 그 자체가 難解하다는 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戰爭에 관한 종합적인 理論을 구축하고자 했던 클라우제비츠는 여러 가지 接近法과 學問分野를 구사했다. 『戰爭論』에는 歷史學, 心理學, 哲學, 戰略, 戰術 등을 비롯하여 社會科學의 方法論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戰爭研究에 있어서, 이처럼 광범위한 학문적 접근법을 구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戰爭遂行이란 그 사회에 있어서 人間活動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戰爭論』이 오늘날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그가 戰爭이라는 사회현상을 辨證法에 의해 究明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辨證法이란 무엇인가? 辨證法이란 問答術을 나타내는 회답語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推

論에 의해 眞理를 탐구하고, 때로는 眞理에 도달하는 方法이라는 뜻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定立과 反定立을 마치고 이 對立이 종합에 도달하는 思想과 實存의 논리적인 발전 등이다. 辨證法은, 絶對와 相對, 無限과 有限, 靜止와 運動, 生과 死처럼 통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궁극적인 대립도 결코 고정시키지 않고, 矛盾으로 생각되는 대립도 流動化(운동의 논리)에 의해 이것을 종합하는 力動的인 思考로 생각하고 있다. 辨證法이란 論理가 아니라 思考方法이며, 그것의 本質은 그 對立이 變化나 運動의 原動力이라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변증법적 사고방식을 즐겨 구사했다는 것은 다음 例에서도 알 수 있다. “연구와 관찰, 철학과 경험은 상호간 결코 경멸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배제해서는 안 된다. 연구와 관찰, 철학과 경험은 상호간 상대편을 보증하는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는 최초로 적군의 타도·격멸을 목표로 하는 「絶對戰爭」을 신봉하다가, 다음은 국경부근에서 적의 영토 일부를 침략하려는 「現實戰爭」으로 전환했다. 그리하여 “戰爭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책의 계속이다”고 하는 데로 발전해 갔다. 이것을 戰爭理論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시대에도 그 시대에 따르는 독특한 戰爭理論이 있었다”고 했다. 이 내용은 클라우제비츠 자신의 戰爭理論도 永久不變이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戰爭遂行이 각각의 시대에 독특한 국가와 군대의 관계에 의하여 想定되어 있다 하여도, 더구나 그 속에는 보편적인 것, 혹은 그 이상으로 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게 마련이다. 이 보편적인 것이야말로, 戰爭理論이 특별히 對象으로 해야 한다.”

18세기에 시작된 戰爭術研究는, 戰爭의 本質에 관해 究明을 의도하지 않고, 주로 전투의 개개의 표면적 현상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시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는 觀念主義哲學의 全盛時代이고, 그 속에 살고 있었던 클라우제비츠로서, 戰爭에 관한 包括的인, 또 깊은 洞察力이 있는 著述을 의

도했을 때, 哲學·論理學, 戰史·政治學·心理學 등의 學際的 研究方法 이외의 方法論은 생각할 수 없었으리라. 따라서 『戰爭論』은 어느 정도의 哲學的 知識이 없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著書는 아니다.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독일 국방군의 총사령관인 제-크트大將(1866~1936)은 『戰爭論』에 대해, “어려운 著述이며, 現代哲學의 熟語를 사용한 비교적 애매하고 딱딱한 文體이다 … 클라우제비츠에 관한 한, 나는 難解한 哲學的 訓練이 缺如되어 있다. 나는 때로는 행운의 공식을 발견하는 才能을 가진 經驗主義者가 되고 싶다”고 한탄했다.

클라우제비츠의 23년간의 實戰의 體驗, 軍事的 專門知識 뿐만 아니라, 人文·社會科學의 기초지식, 명석한 두뇌, 그리고 12년간이나 착실한 研究·思索의 結晶體인 『戰爭論』, 이 책을 능가하는 著書가 아직도 출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구와 사색으로 단련된 두뇌와 인내가 필요하고, 또 비판력과 깊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2, 3회의 安易한 독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리라.

### 3. 왜 『戰爭論』은 誤解되었는가?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이 誤解를 받고 있는 가장 큰 原因은 「絶對戰爭」과 「現實戰爭」의 兩者에 대한 見解가 混在되어 있는 未完成作品이라는 데서 연유하고 있다. 그는 최초 絶對戰爭의 觀點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그러나 40대 후반에 들어가서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現實戰爭으로 轉向하게 되었으며, 그 사실은 1827년 7월 10일자 覺書에다 명시해 두었다. 즉 최초의 이미 집필 완료한 6編을 現實戰爭의 觀點에서 修正해야 한다고 했으나, 1830년 士官學校長職을 사임하고 砲兵監으로 임명되자 修正作業이 중단되고 1831년에 病死함으로 未完成作品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을 분류하면 다

음과 같다.

|          |                       |
|----------|-----------------------|
| 絶對戰爭：第一編 | 戰爭의 本質에 대하여(第1章 除外)   |
| 第二編      | 戰爭理論에 대하여             |
| 第三編      | 戰略一般                  |
| 第四編      | 戰 鬪                   |
| 第五編      | 戰鬥力                   |
| 第六編      | 防 禦                   |
| 現實戰爭：第一編 | 第1章 戰爭이란 무엇인가(完全한 내용) |
| 第七編      | 攻 擊                   |
| 第八編      | 戰爭計劃                  |

클라우제비츠가 現實戰爭으로 轉向하게 된 이유는, 첫째, 古代로부터 나폴레옹戰爭까지의 戰爭史를 면밀히 분석·연구해 본 결과, 1805년 10월의 울름會戰, 1806년 10월의 이에나·아우엘슈테드會戰, 1809년의 바그람會戰 정도가 絶對戰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보편성이 결여된 예외적인 戰爭에 속하고, 그 이외의 나폴레옹의 지휘하에서 실시된 戰爭도 제한된 目標를 가지고 수행된 現實戰爭임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그는 悟性(Verstand)을 論據로 하여, “戰爭術에 있어서, 經驗은 모든 哲學的 眞理보다도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고 했다. 둘째, 敵軍의 打倒·擊滅을 目標로 하는 絶對戰爭을 추구하면, 이웃나라와의 未來의 友好關係를 잃고 복수전의 반복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최후의 결말을 생각하여 최초의 一步를 내디딜 것이 艱요하다”고 경고했다.

軍事目標가 敵의 抵抗力을 무력화하는 데 두는 것이 絶對戰爭이며, 이것이 극단으로 흘러서 戰爭目的(政治的 目的)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즉 전쟁이란 적에게 우리의 意志를 강요한다는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目的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적을 無力化시켜야 하며, 이것이 군사

행동의 본래의 목표이다. 그리고 적을 無力化시킨다는 전쟁의 목표가 목적으로 변하고, 戰爭의 目的은 戰爭 자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배제되었다(『戰爭論』第1編 第1章). 普佛戰爭에 있어서 몰트케가 추구한 것은 絶對戰爭이며, 作戰目標가 戰爭의 政治的 目的으로 되고 말았다. 上述한 內容들은 그 후 世界第一·二次大戰을 회고해 봤을 때, 그의 深奧하고도 놀라운 卓見은 몰트케參謀總長을 비롯하여 그의 후계자 및 日本의 軍首腦들에게는 理解·受容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을 自招한 것으로 생각한다.

#### 4. 『戰爭論』은 어떻게 受容되었나

국가 간의 외교적 교섭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戰爭이 발발하면, 政治家는 무대의 뒤로 물러가고, 이번에는 將帥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자유로운 활동으로 적군을 타도·격멸(絶對戰爭)하면, 그 승리를 배경으로 하여 政治家에 의한 휴전조약이 체결된다는 것이 將帥들의 一般的 通念이었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츠의 現實戰爭觀은 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戰爭의 개시와 더불어 交戰하는 양국 간의 정치적 교섭은 단절하고 이 과정은 전혀 별개의 상태가 나타나며,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상태는 그 자신의 법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主張은, 즉 戰爭은 政治的 交渉의 계속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정치적 계속에 있어서 다른 手段을 섞은 계속이라는 것이다. 첫째, 정치적 교섭은 전쟁에 의하여 단절되는 것도 아니며, 또 전혀 별개의 것으로 轉化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전쟁에 있어서의 사건이 더듬어 주는 주요한 路線은 전쟁을 뚫고 講和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계속되는 정치적 교섭의 요강에 지나지 않는다. …

정치적 관점이 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히 포기되는 것은, 전쟁이 순수한 敵對感情에 바탕을 두고 필사적인 투쟁의 경우에만 그렇다. 그러나 전쟁은, 前述한 바와 같이 政治 그 자체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인 관점을 군사적인 관점에 종속시킨다는 것은 不合理하다. 왜냐하면, 政治가 戰爭을 낳았으며, 政治는 指導的 知性인데 대하여, 전쟁은 다만 그 수단이며, 그 逆은 아니다. 따라서 군사적 관점을 정치적 관점에 종속시켜야만 한다(『戰爭論』 第8編 第6章).

政治가 戰爭을 낳았고, 또 政策의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主宰者이며, 戰爭은 手段에 지나지 않으며, 군사적 관점은 정치적 관점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逆은 아니다. 전쟁이란 그 자신이 스스로 독립된 社會現象이 아니라, 政治의 手法, 즉 政策의 手段·道具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클라우제비츠의 深奧하고도 核心的·獨創的인 軍事思想이다. 이것이 소위 政策 優位思想으로 文民統制(civilian control)의 根源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몰트케參謀總長과 그의 후계자들은 클라우제비츠의 이런 獨創的인 軍事思想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여 종전의 一般的 通念을 固守한 데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戰爭의 開始·遂行 및 休戰締結에 이르기까지 戰爭의 大綱을 결정하고, 將帥에게 戰爭目的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정치가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정치가는 軍事에 대해 어느 정도의 理解가 불가결하다. 프레드릭 大王이나 나폴레옹처럼 政治와 軍事의 최고 지도자가 동일한 인물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그러지 않은 경우, 최고의 將帥를 內閣의 一員으로 임명함으로써 內閣(총리 혹은 수상)은 중요한 군사문제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클라우제비츠의 基本的 軍事思想이었다. 이것은 군사문제에의 內閣의 관여를 강조한 것이지, 정치적 결정에 將帥의 관여를 강조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런데 1853년에 출판된 『戰爭論』의 再版以來, 內閣과 將帥의 主語가 逆으로 改竄되어 버렸다. 즉 “... 將帥는 內閣의 가장 중요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고 改竄된 이 내용은 독일뿐만 아니라, 日本의 政治와

軍事的 관계에 지대한 惡影響을 미쳤다.

軍首腦들이 絶對戰爭觀을 견지하고, 거기에다 統帥權의 獨立을 누리게 되면 軍國主義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며, 가장 좋은 표본이 2次大戰前의 獨逸과 日本이었다. 軍國主義란 普佛戰爭(1870) 이후, 독일에서 일어났으며, 그것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文民에 대한 軍인의 지배, 군사적 요구의 과도한 우월, 軍人的 思考·精神·理念 및 軍事的 價値尺度의 강조를 뜻하게 되었다.

## 5. 지금 왜 클라우제비츠인가-『戰爭論』의 現代的 意義-

1980년대 중반부터 『戰爭論』은 넓게 세계에서 다시 읽히게 되었다. 이 조용하고도 깊은 물결의 봄은 美國에서 일어났으며, 소련의 붕괴에 의해 박차가 가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美國은 越南戰爭에 1965년부터 지상군을 파견하여 직접 군사개입을 시작했다. 미국이 파견한 병력은 54만 명에 달했고, 戰場과는 별도로 파리를 무대로 하여 外交交渉이 계속되어, 1975년의 完全解放前의 1973년에는 「越南 平和協定」이 성립되어, 미국은 굴욕적인 撤兵을 받아들였다. 이 平和協定에 대해서도, 클라우제비츠가 『戰爭論』에서 지적한 것처럼, “최후의 결말을 생각해서 최초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긴요하다”는 씩씩한 敎訓을 미국은 되씹어야 했다. 마이클 헨들의 『戰爭의 거장들』(Masters of War, 1992)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국방대학교의 교수진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에 졸업한 학생들은 서서히 그리고 일부의 학생들은 싫어하면서, 자주 주장되어 온 것처럼, 戰爭과 政治는 不可分의 것임을 理解하게 되었다. …

또 그들은 優柔不斷한 政治的 背景下에서 戰爭을 수행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理解했다.

이런 研究成果를 수용하여, 미국이 軍事紛爭介入의 原則的 指針으로 결정한 것이 「와인버거·독트린」(1984. 10. 28)이다. 이 가운데의 六原則은, 잘 읽어보면 클라우제비츠 『戰爭論』의 복사판임을 알 수 있다.

- ① 國家와 同盟의 利益을 지킨다(제1편 제2장).
- ② 政治目的과 軍事目標를 명확히 한다(제1편 제1·2장, 제8편 제3장).
- ③ 政治目的과 軍事目標를 계속적으로 재평가한다(제1편 제1·2장, 제8편 제3장).
- ④ 國民의 支持를 확보한다(제3편 제5장).
- ⑤ 戰力投入은 최후의 수단이다(제1편 제2장).
- ⑥ 戰力投入에 있어서 最大戰力을 집중한다(제1편 제1장, 제8편 제3·4·9장).

부시大統領은 이 6原則을 준수하여 걸프戰爭에서 戰術的으로 快勝하여, 美國의 威信을 회복시켰다. 美國國防大學校의 越南戰爭의 敗因研究와 國策으로서의 「와인버거·독트린」은 1980년대 중반부터의 세계적인 『戰爭論』 붐의 原點이 되었다.

蘇聯과 蘇聯軍은, 1917년의 발족 이래, 『戰爭論』의 애독자였다. 제1차 대전에서 러시아의 각 도시를 점령한 독일군은, 거의 모든 도시의 도서관에 『戰爭論』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2차 대전에서도, 『戰爭論』의 敎理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여 戰果를 확대한 것은 스탈린이었다. 후에 스탈린은 “『戰爭論』은 낡았다”고 公言했기 때문에, 소련과 위성국에서 『戰爭論』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스탈린의 死後인 1953년 이후였다. 특히 舊東獨에서는 클라우제비츠가 프로이센軍의 개혁자였다는 것, 앵겔스와 레닌이 『戰爭論』을 애독했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츠를 「독일의 애국자」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1971년 11월 16일 클라우제비츠의 140回命日에는 폴란드의 블레스라우의 墓를 파서, 遺骸를 고향인 프루크의 東墓地에 옮기고 성대한 儀式을 거쳐 재 매장했다. 冷戰中の NATO司令部에서는 소련군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론』을 잘 읽어두어야 한다는 풍조가 있었고, 독일 국방장관이며, 후에 NATO事務總長이 된 M. 베르나는, “『전쟁론』을 읽지 않는 장교와는 얘기도 하기 싫다”고 공언했던 것이다.

中國의 人民解放軍國防大學校는, 1997년 새로운 『전쟁론教程』을 발행했다. 이 教程에는 「至尊兵法」「權威教本」이라는 副題가 붙어있고, 序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전쟁론』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軍事的 傑作的 하나이다. 이 책은 독일에 서 20회나 版을 거듭했고 西方側諸國의 教本으로서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부르조아軍事理論의 기초를 쌓아올려, 軍事理論의 最高權威(兵學大師聖)로 호칭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革命의 指導者들은 『전쟁론』에 주목하여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 엥겔스는 클라우제비츠를 最高級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의 學問的·哲學的 思考는, 개성적이고 한편 다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실로 훌륭하다”고 적고 있다. 레닌은, 1915년에 『전쟁론』을 읽고, 一萬語 이상의 拔萃와 書評을 적고 있다. 제1차 대전 중의 레닌은, 클라우제비츠의 規範에 따라 戰爭을 분석하고, 프로레타리아革命을 지도했다.

中國에서는 1903년에 『전쟁론』의 研究가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11種의 譯書가 있다. 毛澤東은 1938년 3월부터 『전쟁론』을 읽기 시작하여, 『전쟁론』을 위한 研究集團을 조직했다. 우리들은 毛澤東의 여러 가지 論文에서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기본적으로 『전쟁론』에 同意하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서 革命戰爭을 지도했다. 오늘날에도 『전쟁론』에는 구체적인 意義가 있으며, 戰爭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理論的 教範이다.

毛澤東은 小戰爭, 持久戰, 戰爭과 政治, 軍의 武德, 相對的 優勢 등에 관

심을 가지고, 「抗日戰爭의 基本方針」을 여러번 검토하여 수정했다. 毛澤東은 클라우제비츠의 理論을 더욱 발전시켜, “政治는 流血없는 戰爭이며, 戰爭은 流血을 수반한 政治이다”고 著書, 『持久戰論』에서 얘기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明治建軍以來, 특히 陸軍大學校 戰術教官으로서 日本에 온 맥켈少領(몰트케總參謀長의 추천으로)의 영향에서 시작되며, 100년 가까이 독일과의 교류와 『戰爭論』 研究의 歷史가 있다. 陸大戰術教官으로서 日本에 온 맥켈參謀少領은, 1885~88년의 3년간 근무했고, 後任의 여러 參謀將校에 의해 日本陸軍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日本에서의 『戰爭論』의 번역은, 1886년부터 프랑스語譯을 底本으로 하여 시작되었으나, 1년 남짓해서 難解로 중지되었다. 겨우 번역이 완성된 것은 露日戰爭直前の 1903년이였다.

맥켈少領을 비롯한 4명의 獨逸人陸大教官은, 주로 戰術을 가르쳤으며, 戰爭의 本質이나 戰略論은, 1945년까지 陸軍大學教育의 主要題目이 아니고, 거기서의 教育은 戰術偏重이었다. 『參謀服務要綱』도 맥켈少領의 補訂에 의해 淸日戰爭中の 1895년에 발간되었다. 예컨대, 맥켈少領에 대한 日本의 陸大學生의 評價는, 「① 놀라운 기억력, ② 지능의 과시, ③ 모멸적 발언」으로 요약되어 있으나, ②와 ③은 軍事에 대한 見識의 큰 차이 때문이리라.

日本陸軍은, 淸日戰爭에서는 거의 독일의 敎本으로 싸웠고, 露日戰爭에서는 비로소 日本獨自의 敎本을 일부 채용하여 싸웠다. 日本은 淸日戰爭·露日戰爭에서는, 伊藤博文·桂太郎이라는 걸출한 首相에 의해, 『戰爭論』에서 평가하면 모범적인 戰爭指導로 快勝하여 세계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中日戰爭과 太平洋戰爭에서는, 政治의 軍事에 대한 優越이 붕괴되고, 國力에 대한 평가에 과오를 범하여 필연의 결과로 敗北에 이르렀다.

『戰爭論』이 오늘날 日本에서 조용한 火를 계속하고 있는 배경에는, 『戰爭論』에 統率이나 經營面에서의 敎訓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6. 回顧와 展望

필자가 최초로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과 만나게 된 것은 1957년 7월 19일 대구의 古書店에서, 美國에서 최초로 번역된 1943年版의 『ON WAR』(Modern Library)였다. 당시 空軍士官學校 軍事學教官(中尉)인 나는 著書와 冊名도 알지 못하고 구입했는데, 부끄러운 얘기이다. 그러나 1954년 사관학교를 졸업했을 때까지, 『戰爭論』을 배워보지 못했다. 아니 당시로서는 가르칠 教官이 없었다는 것이 正答이리라. 그 책을 읽기 시작했으나, 제1편 제1장도 모두 읽지 못하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 팽개치고 말았다. 마침 美國留學에서 돌아온 선배가 클라우제비츠의 『戰爭의 原則』(클라우제비츠가 皇太子에게 가르친 講義概要)을 주었기에 읽고 抄譯하여, 기초 훈련을 마친 幹部候補生들에게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空士新聞」 創刊號(1957. 10)에 「클라우제비츠將軍의 生涯와 戰爭原則」을 발표함으로써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82년 7월 말, 미국의 워싱턴에서 개최된 國際軍事史學會議에 참가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회의 후, 美國防大學(National War College)과 美陸軍大學(U.S. Army War College)을 방문하여 戰略學部長들을 만날 것을 단단히 베풀고 갔다. 그 이유는 한국군은 60만의 大軍이요, 6·25戰爭 및 越南戰에도 參戰하여 지금까지의 풍부한 實戰經驗을 쌓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戰鬥는 했어도, 戰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스스로 軍事戰略을 수립하여 戰鬥를 해보지 못 했으니, 어떤 理論的 基礎에서 節次와 手法으로 軍事戰略을 수립하는가를 알고 싶었다. 兩校의 戰略學部長들과의 對話에서 알게 된 사실은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과 『孫子兵法』을 가르치고 또 토론을 하고 있다는 데 놀랐다. 美陸軍大學의 戰略學部長 존 스튜워드 大領은 나의 질문을 받고,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권의 教材를 주었다. 그것은 『軍事戰略：理論과 應用』(1982-1983, Military Strategy : Theory and Application)이었으며, 거기에는 軍事戰略의 理論과 實際問題로 엮어진 소중한 책이었다. 귀국 후, 이 책에서 論文을 선택하여 번역하고, 필자의 논문과 편집해서 『軍事戰略－理論과 實際－』(博英社, 1987)를 발간했다.

필자가 空軍士官學校·空軍大學 그리고 國防大學院에 재직하며 軍事學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孫子兵法』과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을 피교육자의 수준에 맞추어 가르쳐 왔는데, 요즘은 國防大學校에서는 科目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외는 알지 못 한다. 그동안 軍事理論과 戰爭史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얻은 귀중한 敎訓은 軍事學研究를 소홀히 한 군대가 戰爭에서 승리한 戰例가 아직 없었다는 엄연한 歷史的 事實의 발견이었다. 世界最強을 자랑했던 美軍이 越南戰爭에서 敗北당하고 말았는데, 이 문제를 심각히 반성한 미국의 서머스 陸軍大領은 『戰爭論』을 바탕으로 하여 저술한 『戰略論－越南戰爭의 批判的 分析』(1982)의 결론에서, “越南戰爭으로부터 더득한 戰略的 敎訓의 진수는 우리 군인들이 軍事分野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고 뼈저리게 갈파했던 것이다.

冷戰構造가 붕괴되었을 때, ‘이미 『戰爭論』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지만, 「軍事改革」이든 「테러戰爭」이든 戰爭의 本質은 결코 변하는 것은 아니며, 政治와 軍事와의 關係, 戰爭遂行 및 戰略·戰術의 考慮要因 등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클라우제비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戰爭計劃의 수립자가 설정하는 목표와 투입해야 하는 수단은, 그 시대의 독특한 일련의 상황에 바탕을 두고 결정되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이런 독특한 상황은, 그 시대의 정신과 보편적인 성격을 內在하고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표와 수단은, 戰爭의 本質에서 유도되는 보편적인 결론에 따라야 한다(제8편 제3장).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은 마치 각종의 金屬類를 매장하고 있는 거대한 鑛山과도 같다. 발굴자의 노력과 능력의 수준에 따라 金剛石·金을 발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鐵·銅 혹은 돌맹이도 캐지 못 했다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이것이야말로 軍事古典의 妙味가 아닐까! 發掘方法으로는, 『戰爭論』은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제1편 제1장을 숙독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제1편을 모두 읽음으로써 책의 全體像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제8편의 「戰爭計劃」과 제7편의 「攻擊」을 읽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클라우제비츠의 現實戰爭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각 편의 흥미 있는 부분을 읽는 데, 그것은 수정되지 않은 絶對戰爭觀으로 집필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클라우제비츠의 思考過程을 逆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이해가 쉬워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1. 11. 22. 脫稿)

K C I